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방향과 과제

인구 5만 '미래형 명품 신도시' 만든다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 들어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726만5천㎡(220만 평)의 면적에 행정과 미래전략산업, 관광레저, 교육문화, 웰빙 주거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인구 5만 명 규모의 '자족형 미래형 명품 신도시'로 꾸며진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함께 추진하는 상생(相生)의 신도시로서, 17개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기지로 건설된다.

2012년까지 1조6천억 투입 개발 17개 공공기관 '완전한 이전' 과제

◇어떻게 개발되나=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까지 1조6천7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토지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개발 슬로건으로 삼고 있으며, '그린 에너지 지파아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2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며, 인구 밀도가 1ha당 69세대 불과한 반면 공원과 녹지의 비율은 무려 25.6%에 이르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중앙에 전국 최대규모인 52만㎡의 중앙호수 공원이 만들어지며, 주변에 23만㎡의 수변공원이 확보된다.

또 17개 이전기관 이주자에게 주거와 레저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75만㎡에 18홀을 갖춘 골프장이 조성되며,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에 303세대에 이르는 단독주택 형식의 페어웨이 빌리지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기존 저수지 2곳과 실개천 등을 활용해 풍부한 친수공간이 조성되며, 배메산을 거점으로 녹지체계를 구축해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다수 공공기관의 청사와 가로등, 공동주택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치를 적용, '친환경 에너지 생태도시'로 만들어가게 된다.

◇어떤 기관 이전하나=한국전력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은 에너지 기능군, 한국농촌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등 4곳은 농생명기능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작권심의위원회 등 4곳은 문화예술기능군, 정통부지식정보센터 등 5곳은 정보통신기능군으로 각각 분류돼 이전한다. 해양경찰청은 여수지역으로 별도 이전한다.

본사 기준으로 이들 기관의 근무인원은 5천566명이며 예산규모는 41조7천500억원, 지방세 납부액만 137억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연구소, 관련 기업 등의 이전도 크게 기대할 대목이다.

17개 이전 공공기관은 부지 중앙의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한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을 하루 앞둔 7일 나주시 금천면 혁신도시 기공식 현장이 준비로 분주하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며, 인구 5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력 등 한전 관련기관, 한국농촌공사 등 농업관련 3개 기관과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기관이 배치된다. 한편에는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전자연구소, 한국전과 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기술관련 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향후 과제=그러나 공동혁신도시는 최근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5명중 1명만이 가족과 함께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실제 이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이전대상 기관들은 수도권 본사를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핵심기능과 인력은 수도권에 놓아둔 채 빈 껍데기만 내려보낼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에

게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주거와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일단 기공식은 열렸다고는 하지만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03년盧대통령 공공기관 이전 선언

2005년 7월 광주·전남 공동건설 합의

혁신도시 추진 과정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추진된 것은 지난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에서 '중앙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단초가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참여정부는 이어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과 함께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이전대상지역을 함께 제시했으며, 같은 해 7월 6일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광주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혁신도시 대상지역으로는 나주와 담양, 장성, 화순 등이 거론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으로 대상지역이 확정됐다.

이후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26일 실시계획 승인과 8월 착공에 이어 오는 2012년 12월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기능군	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산업 (3개)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농생명산업 (4개)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정보통신산업 (6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연구소, 한국전파진흥원, 컴퓨터보호진흥위원회, 한전KDN(주)
문화산업 (3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기타 (2개)	사립학교고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해양경찰학교(여수로 이전)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추진 일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합의	2005년 7월 6일
공동혁신도시건설 임지 확정	2005년 11월 30일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개발지구 지정	2006년 11월 23일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시행	2007년 2월 12일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	2007년 5월 31일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착수	2007년 10월 8일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2007년 10월 26일
혁신도시 공사 착공	2007년 11월 8일
실시계획 완료	2008년 5월 예정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	2012년 12월까지

“광주·전남 상생발전 거점 만들 것”

광주시·전남도 입장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를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혁신도시를 첨단산업과 친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울리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첨단 에너지 산업을, 문화관련 연구기관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그리고 농촌

관련 기관은 새로운 농업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륙도시인 광주가 서남권으로의 연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과거 신도시 개발과는 전혀 다른 지역발전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며 “공동혁신도시 착공을 계기로 더 큰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혁신도시를 첨단산업과 친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점도시’로 육성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 임직원을 위해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산단과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시장은 “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을 상징한다”며 “시·도민과 양 지자체가 공동협력, 지역의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 가는 전국 제일의 혁신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inews@kwangju.co.kr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자가 혈당측정 왜 해야 할까요?

자가 혈당측정은 식사, 운동, 약물요법, 스트레스 등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이란 생활 속에서 꽤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규칙적인 혈당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혈당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혈당측정 방법 및 측정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혈당측정은 당뇨병 관리가 될 때는 이를 돕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 줍니다.

정확한 혈당측정기
ACCU-CHEK® Go
아큐·чек®고

올바른 당뇨관리의 모든 것!
아큐·чек이 알려드립니다

아큐·чек 전세계 5,000만대 판매 돌파기념 5·50·5,000페스티벌!

행사기간 중 아큐·чек 고를 구입하고 홈페이지에 제품번호를 등록하시면
매거진 안의 교환카드를 보내 주시면 무기한 무량한 경품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11.1~11.30

하나! 추천을 통해 5000명
까지 당첨고(100만원 상당) 중점
*제출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점 1명만 가능하며 중복이 없습니다.

둘! 추천을 통해 5000명
응원 케이스가 늘면 1000명 상당 중점

셋! 신청순으로 5,000명에 조인일부터
발행하는 '헬스 초선 M' 당뇨 책자 중점

구입 문의 | 1644-0119
www.accu-check.co.kr

ACCU-CHEK®
당뇨관리의 진실한 동반자

국제선 확보 등 활성화 대책 절실

■무안국제공항 오늘 개항

무안국제공항이 '8년만의 대역사' 끝에 8일 개항해 서남권의 대 중국·동남아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올랐다. 무안국제공항은 이날 개항과 함께 9일부터 국제선 9편과 국내선 7편 등 총 주16회의 항공편을 운항하게 된다.

국제선은 동방항공의 무안~중국 상하이 노선 주7회, 남방항공의 무안~창사 노선 주 2회 등 주 9회이며 오는 12월부터는 타이완~무안~중국 상하이를 잇는 환승노선 주28편이 추가돼 총 37편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께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공항의 국제선(주4편)이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며 일본 후쿠오카와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파타야 노선도 취항을 협의 중이다.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아시아나 항공이 매일 무안~김포 노선을 운항하며 대한항공도 무안~김포, 무안~제주 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선 운항이 점차 활성화될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최첨단 운항안전시설을 갖춘데다 안개 일수도 연간 10일에 불과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무안공항 개항으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

업도시(J프로젝트)나 무안기업도시, 나주공동혁신도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서남권 활성화에 중추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항 전부터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 때문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와 전남도는 신규 국제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여객사에 대한 다양한 우대나 공항이용료 감면 등 무안공항 조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무안공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완공시기를 앞당기고 공항 이용 승객을 위한 시외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주노선 등 장거리 항공편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현재 2천800m에서 3천200m로 연장하고 급유시설도 9천배럴에서 1만천배럴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이 개항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항공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노력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